

방위산업

Issue Comment

Overweight

이란 사태: 대공무기의 시대가 왔다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공습으로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였으나 곧바로 후속 수뇌부가 구성되었고, 중동지역의 미군부대 등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며 사태는 격화되고 있다.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추가 공격을 예고하면서 향후 정세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 UAE,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 공습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는 등 중동국가 전역으로 위협이 퍼지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이 받을 영향: 대공무기 수요증가, 지상무기로도 이어질 것

이번 이스라엘/미국-이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따라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4년만에 다시 한번 전세계에 자국의 방위력 증대를 통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울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세계적인 방위비 확장 기조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은 자명하며, 그중에서도 이번 사태가 한국 방위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경이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국가간의 분쟁이므로 지상전이 주가 된 러-우전쟁과는 다르게 공습 및 방어, 즉 미사일과 대공무기 위주의 전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방위산업의 수요에 미칠 영향 또한 해당 무기에 집중될 것이다. 더해서 이란과 국토를 맞댄 이라크와, 친 이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예멘과 국토를 맞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상무기까지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단기 : 기존 중동과 계약된 무기(천궁-II등) 인도 가속화 및 조기화
- 2) 중기 : 중동과 기존 계약한 대공무기(천궁-II등)의 추가 발주 및 협의 중이던 무기 (K2,K9,천무 등)의 계약 가속화
- 3) 장기 : 중동발 고사양 대공무기(L-SAM) 발주, 기타지역(유럽 등)발 대공무기(천궁-II등) 발주 증가

1) 먼저 단기적으로 중동국가인 UAE, 이라크, 사우디와 계약한 대공무기인 천궁-II의 인도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란은 본토를 공격받은 직후 주변 중동국가를 향해 전방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탄도미사일은 물론 드론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에 따라 중동의 대공미사일은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중동국가와 이미 맺은 대공무기 계약의 인도 조기화를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2년 UAE, 24년 사우디, 25년 이라크와 각각 약 4조원 규모의 천궁-II 계약을 맺었다. 이중 UAE에 납품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해부터 납품이 본격화되어 계약종료기간인 2030~34년까지 인도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동사태 격화로 납품 조기화 및 유관회사(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실적 인식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조선/방산]

변용진

2122-9181

Yongjin.byun@imfnsec.com

2) 중기적으로는 해당 중동국가들의 천궁-II 추가 발주 및 기타 무기체계의 신규 발주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기존 협의중이던 계약 건들이 여건상 협상 중단 또는 지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협의는 재개되어 오히려 발주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UAE, 사우디, 이라크의 천궁-II 기존 계약 물량은 포대 기준 8~10포대 (발사차량+레이더 +교전통제소) 수준이며 이는 한국군 배치 물량(20여 포대 추정)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20배가 넘는 사우디의 경우 포대 기준으로도 추가적인 발주는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소모품인 미사일의 추가 발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라크의 K2, 사우디의 천무/K9/장갑차, UAE의 KF-21/K2등 해당 국가들과 기존 협의중이던 기타 무기체계의 발주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3) 장기적으로는 M-SAM(중거리 요격미사일)인 천궁-II에 더해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넓은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 육해공군 외에 방공군이라는 편제를 따로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 체계는 장거리용으로 미국의 THAAD와 패트리엇, 그리고 중거리용으로 한국의 천궁-II를 운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방공 체계들이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기지의 방어를 위해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국의 생산 여력이 수출에 할당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제 막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L-SAM도 도입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양산 전 단계부터 L-SAM에 관심을 보여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수출승인을 득한 상태로, 상대국의 의지 여하에 따라 향후 수출계약으로 급속 진전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중동을 제외한 기타 전세계 지역에서의 방공수요 역시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상무기의 대량 수요를 촉발했다면, 이번 사태는 베스트셀러인 천궁-II를 포함 LIG넥스원의 신궁, 한화시스템의 천광과 같은 다른 대공무기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표1. 천궁-II 수출 요약

국가	계약 시점	계약 규모	납품시작	계약종료(공시기준)	수량
UAE	2022년 1월	4.1 조원	2024년	2030년	10개 포대
사우디아라비아	2023년 11월	4.3 조원	2026년	2034년	10개 포대
이라크	2024년 9월	3.7 조원	2027~28년	2031년	8개 포대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방산업체 중동 수출프로젝트 진행 현황

회사	수출국가	품목	대수	계약규모	예상 계약시점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우디	K9, 천무, 레드백 등	-	15~17 조원	2026	사우디 내 방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포괄 패키지계약 협상 중
현대로템	이라크	K2	250대	9 조원	2026	K2ME 개발 완료, 현지 테스트 예정
LIG 넥스원	사우디	비공	-	-	-	협의 중
	사우디	L-SAM	-	-	-	사우디 관심 표명, 사전수출승인 획득
	UAE	L-SAM	-	-	-	UAE 관심 표명, 사전수출승인 획득
한국항공우주	UAE	KF-21				24년 공동개발 MOU 체결, 후속 논의 지속 중
	UAE	수리온		7~8 천억	2026	
	이라크	수리온	30대	1.5 조원	2026	
	사우디	KF-21				사우디 관심 표명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미국/이스라엘 - 이란 상호 공습 모식도



자료: 언론보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천궁-II가 포함된 UAE 방공시스템, 이란의 공습 96%요격



The UAE's air defense today achieved a success rate of more than 96% in intercepting missiles after destroying 132 out of 137, and more than 93% in intercepting drones after intercepting 195 out of 209, for a total of 327 threats intercepted out of 346 with a success rate of around 95%. This is a figure that places it among the highest interception rates globally, which typically range between 85% and 95% depending on the type of threat and the conditions of engagement.

자료: X,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LIG넥스원의 유도무기 라인업



자료: LIG넥스원,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천궁-II 1개 포대 구성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UAE에 배치된 천궁-Ⅱ및 방공시스템



자료: The Army Recognition,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천궁-II 요격능력 추정

천공-II 요격능력(km)	사거리	요격고도	요격반경	방어면적 (km ²)
Case A (항공기방어)	50	20	46	6,594
Case B (타도탄방어)	20	15	13	550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표3. 사우디아라비아/대한민국 M-SAM 필요대수 추정 - 사우디 배치수 현저히 부족

천공-II 필요 대수 추정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적성국가 국경선(km)		1,800 (직선 1,000)	238 (직선 200)
국토면적(km ²)		2,150,000	100,000
Case A (항공기 방어)	필요 포대수(국경선)	10.9	2.2
	필요 포대수(전 국토)	326.1	15.2
	합계	337.0	17.3
Case B (탄도탄 방어)	필요 포대수(국경선)	37.8	7.6
	필요 포대수(전 국토)	3,912.6	182.0
	합계	3,950.4	189.5
배치 포대수(예정)		10	20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5-12-31 기준]

매수	종립(보유)	매도
90.6%	9.4%	-